



일률화, 단순화된 대학생 해외연수 형태를 변화시켜야...



정 석 구
명지대 초빙교수

I.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우리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각종 정보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가능하며, 또한 지식과 정보가 급격히 팽창하여 한 나라의 힘이 그 나라가 축적한 지식과 정보의 양에 달려있는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 대학은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변화의 중심에서 있다. 따라서 학생과 교수들은 이러한 변화의 주역으로서 이들의 다양한 사고와 경험은 대학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

대학생 해외연수는 다소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제외하곤 그 긍정적인 측면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제도와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문화와 풍토 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해외연수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감각과 시야를 넓히고 사고의 틀을 유연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최근 4년 간 주미 한국대사관 교육관으로 근무하며 보고 느꼈던 대학생 국제교류 추세를 거울삼아 우리 대학생 해외연수의 실태와 발전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미국 내 대학생 해외연수 실태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멜팅팟(melting pot)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은 그 자체로서 세계무대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미국의 학생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양성(diversity)'을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꾸준히 이를 실천하고 내면화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필자가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교육 관계자를 접촉하고 또한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들을 방문한 바 있는데, 그 중 부럽고 놀라운 사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하나같이 다양성을 강조했다. 이렇듯 다양성을 소중한 가치로 배우고 익히는 것은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공존하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간의 화합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직접 체험함으로써 다른 것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또한 무수히 많은 미국 대학들의 입학담당관을 만나면서 왜 미국 대학들이 외국학생 유치에 그토록 적극적이었는지 대하여 의례적으로 질문을 하곤 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는 역시 한결같이 '다양성'이었다. 미국 대학들은 학생 집단 구성의 다양성을 교육의 수월성을 증대시키는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종교적 신념처럼 확고해 보인다. 물론 외국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학교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나 그들에 있어 다양성은 돈으로는 계량할 수 없는 더 큰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국가 정책적으로 외국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 교육교류와 이해 증진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적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도

1946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적 맥락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다. 각 대학들도 이에 부응하여 외국 유학생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미국 국제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민간 단체 중의 하나인 국제교육연구소(IIE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가 발간한 국제교육관련 통계자료인 'Open Doors 2001'에 의하면 2000 - 2001 학년도 미국 내 유학생은 총 547,86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6.4%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되고 있다. 이중 한국 학생은 45,685명으로 미국 전체 외국학생의 8.3%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 인디아,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외국 유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미국 경제에 110억 달러(약 13조 2,000억 원)를 기여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특히, IIE 자료에 의하면 미국 영어 연수 프로그램(IEP : Intensive English Programs)에 등록한 한국 학생은 연인원 12,772명으로 이는 IEP 전체 학생 85,238명의 15%에 해당되며, 우리나라는 일본 23%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미국대학 영어 연수 프로그램의 가장 큰 고객층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한국 유학생 중 영어 연수생의 경우 대부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워싱턴 주변의 대학에 등록하는 경향이 높다. 이는 미국에서 장기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체재하기 때문에 의식주 등 생활의 편의성과 현지 적응의 용이성을 고려한 선택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같은 영어교실에 한국학생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영어를 배우는 연수과정에 한국학생들이 많으면 같이 어울리게 되어 한국어 사용빈도가 늘어나고,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적어지게 되며, 또한 영어 사용의 질박성도

떨어져 영어 학습의 효과는 그리 높지 않게 된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영어 연수의 절박성을 느껴서 연수하기보다는 주변에서 남들이 하니깐 경험상 나도 따라 해보자는 식의 사고를 갖고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들 학생들은 영어 연수 그 자체보다는 미국 생활을 체험하고 여행을 즐기는 것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구태어 한국 학생들이 적은 대학을 찾을 이유도 적게 된다. 이러한 경우 영어 연수 자체는 한국 내 대학이나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 학습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생들의 해외연수는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폭넓은 여행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나 삶의 현장을 체험한다는 측면도 중요하고, 단기 어학 연수를 통해 팔목할 만한 언어능력 향상을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불리어는 것이 좋다고 가치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영어 구사 능력 향상이 중요한 목적인 경우에는 가급적 한국학생들이 적은 지방 소도시의 대학들을 선택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밖에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서 대학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외국대학들과 자매결연 형식으로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으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매결연은 맺고 있으나 학생, 교수들의 실제적인 상호 교육 교류 프로그램이나 학점인정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외에도 국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주선하는 민간 단체를 통한 장·단기 연수제도와 방학기간 또는 재학 중 일정기간 미국 내 국제기구나 전공관련 단체, 회사 등에서 인턴 형식으로 연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리 활발하지는 않으며, 특히 인턴 연수의 경우 어학 연수 형태와는 달리 어느 정도 영어 해득

능력을 갖추어야하고, 고용 형식을 취하는 경우 비자 문제도 관련되기 때문에 아직은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Ⅲ. 해외연수의 발전 방향

우리 사회 각 부문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 해외연수는 이제 하나의 대세로 굳어져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4만 명 이상의 외국 유학생이 유입되어 공부하고 있지만 해외연수 나가는 미국 학생들의 증가 또한 만만치 않다. IIE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3,500명의 미국 대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나갔으며, 이들 학생들은 4년 연속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도 대학생 해외연수의 가장 큰 목적을 국제적인 문제나 이슈에 대한 감각과 시야를 넓히고, 국가 간 상호 이해증진의 토대를 다지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외 연수생의 90%가 한 학기 이하의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영국,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 해외연수의 바람직한 형태를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대학생 해외연수가 지나치게 어학연수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고, 또한 연수 일선 업체 등을 통해 학생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도 효과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각종 전문화된 국제 교육 교류 단체들이 대학과 연계하여 질 높고 신뢰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알선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NAFSA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는 국제교육교류를 촉진하는 매우 조직화된 단체로서 국제교육교류 분야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 단체는 매년 전 세계에서 5,000명 이상의 국제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교육자 대회를 개최하여 국제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와 전시회,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대학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KAFSA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몇몇 대학들과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활동이 매우 일천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의 각 대학들도 선진 각국의 국제 교육 교류단체나 대학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국제 교육 교류 활동을 학생 개인차원이 아닌 대학차원에서 보다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대학들이 이들 국제 교육 교류 경험이 많은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교육 교류에 관한 선진 경험을 나누고 좋은 프로그램은 벤치마킹하여 이제는 우리 학생들의 해외파견뿐만 아니라 외국학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널리 홍보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석구**

정석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및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위스컨신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 20회 행정고시를 합격('77)하여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대학지원총괄과장, 국제교육협력관, 주미 한국대사관 교육관, 강원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명지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